

韓日 경제전쟁에... 속 끊는 롯데, 오늘부터 사장단회의

신동빈 회장 주재로 닷새간 회의
10박11일간 日 출장 마치고 귀국
현지 기류 등 관련 메시지 '주목'

롯데그룹이 16일부터 5일간 신동빈 회장 주재로 올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1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16~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올해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 회의)을 주재한다.

롯데 각 계열사 대표와 지주사 임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VCM은 16~19일 식품, 유통, 화학, 호텔 등 롯데그룹 내 4개 사업 부문(BU)별로 사장단 회의를 진행하고, 2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에 우수 실천사례를 모아 신 회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상·하반기 사장단 회의는 롯데그룹이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했지만, 이번

에는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신 회장이 최근 한일 간 갈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신 회장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현지 정·관·재계에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하던 지난 5일 일본으로 출국해 10박 11일간의 출장 일정을 소화한 뒤 15일 오전 귀국했다.

신 회장은 일본 출장 중 노무라증권과 미즈호은행, 스미토모은행 등 롯데와 거래하는 현지 금융권 고위 관계자와 관·재계 인사들과 만나 현지 기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 합작사가 많아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 분석이다.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태일의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결산 설명회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불매운동이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롯데는 상당한 규모의 차입금과 투자를 한국보다 금리가 낮은 일본 금융권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대한(對韓) 금융규제에 나설 경우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이 출장 중 일본 내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다"며 "이번 VCM에서 최근 한일 양국 관계와 관련해 본인이 파악한 내밀한 현지 기류를 계열사 사장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애니·웹툰 등 韓 콘텐츠 사러 왔어요” 넷플릭스 등 글로벌 큰 손 한 자리에

러시아에서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프로그램 채널인 CTC Kids 디렉터로 일하는 엘레나 수크하노바 씨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국제콘텐츠마켓 SPP(서울 프로모션 플랜)에 참석해 CTC Kids에 방영할 한국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다. 에듀테인먼트는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교육용 콘텐츠에 오락성을 더해 게임을 하듯이 즐기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엘레나 씨는 들뜬 표정으로 “3일간 매일 20개의 미팅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일정을 셀러(Seller·판매자)와 미팅으로 꽉 채웠다. 엘레나 씨는 “몇몇 한국 작품들은 정말 멋졌기 때문에 이런 멋진 작품을 더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국에 왔다”며 “내년에도 SPP에 참석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서 국제콘텐츠마켓(SPP)을 열고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 올해 19회를 맞았다.

SPP는 애니메이션과 웹툰을 중심으로 한국 콘텐츠의 판매 및 구매, 공동제작, 투자유치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즈니스 장이다. 올해는 넷플릭스, 니켈로디언, 유쿠 등 해외 유명 기업들이 참가를 확정 지으며 국내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로를 열 것으로 보인다. 3일간 전 세계 30개국 450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미팅을 한다. 올해는 지난 행사와 다르게 온라인 사전 매칭을 진행해 2600여 건의 바이어와 셀러 미팅을 확정했다.

바이어들은 애니메이션, 웹툰을 넘어서 캐릭터나 스토리 등 새로운 IP(지식재산권)를 따내기 위해 쉽 없이 미팅을 진행했다. 태국에서 온 주크 솜사만 더 몽크 스튜디오 대표는 “새로운 IP를 찾으러 왔다”고 밝혔다. 이미 예약된 미팅만 21건이다. 태국에서 가장 큰 애니



전세계 30개국 450개 기업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콘텐츠마켓의 '비즈매칭'에서 미팅을 하고 있다. /배한님 기자

국제콘텐츠마켓 SPP 개막 넷플릭스 등 450곳 '비즈 매칭' 참가 사전매칭으로 2600건 셀러미팅 확정

메이션 스튜디오인 더 몽크 스튜디오는 올해로 3년째 SPP에 참가한다. 주크 대표는 “우리 자체 IP도 만들고 있지만, 태국에 콘텐츠를 만들 충분한 인력이 없어서 외국에서 많은 콘텐츠를 가져오고 있다”며 “한국은 좋은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를 많이 갖고 있어 새로운 오리지널 IP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PP는 규모가 작은 미디어 스타트업에게 해외 바이어를 만날 중요한 기회다. 문지에 엠앤미디어 대표는 “다양한 국가의 글로벌 배급사를 만날 수 있는 큰 행사여서 2014년부터 매년 참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앤미디어는 자사 콘텐츠 IP와 극장판 애니메이션 카봇 등 파트너사 콘텐츠 IP를 관리하고 있다.

문 대표는 “지금까지 중국으로 유통을 많이 했는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 한다”며 “오늘 미팅을 10개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은 사오미와 저희 회사가 SPP 주관으로 업무 협약식을 맺는다”고 덧붙였다.

SPP는 대기업에도 글로벌 파트너사와 만나는 중요한 자리다. 씨제이엔엠(CJ ENM) 김대현 글로벌사업팀 팀



영국에서 온 가브리엘라 코엘로-리체 와일드브레인 패밀리 인터내셔널(WildBrain Family International) 대표는 한국의 좋은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찾아 미팅을 하고 있다.

장은 “10년째 참석하고 있다”며 “SPP에는 아시아 파트너사가 많이 참석해 그들과 네트워킹을 맺는 자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씨제이엔엠은 레인보우무비, 로보트레인 등 수십개 국내 방영되는 IP를 갖고 있다. 그는 “매년 바이어 리스트를 확인해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을 수 있을지도 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산업진흥원은 아시아 국가 간 비즈니스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시아 시장 전문 포럼, 아시아뉴디렉션(AND)을 신설했다. 한국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해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사의 의사결정권자를 주축으로 아시아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연합(AAA)도 발족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웹툰 지식재산권 확보하자”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전쟁

네이버 '웹툰 공모전 2기'

대상에 1억... 네이버서 정식연재
카카오 '다음 웹툰 공모대전'
본선 진출시 개발비·멘토링 등 지원

국내 양대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지식재산권(IP) 확보 움직임에 적극적이다. 웹툰은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과가 좋을 뿐더러, 우수 IP만 있으면 웹툰을 기반으로 소셜, 영상, 캐릭터 상품 등으로 활용하는 등 활용도가 높은 영역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총상금 15억원 규모의 웹툰공모전 '지상 최대공모전' 2기 접수를 시작했다. 총 3기로 나눠 9월까지 진행하며 각 기수마다 대상(1억원, 1편), 최우수상(3000만원, 1편), 우수상(각 1000만원, 2편), 장려상(각 500만원, 4편), 영상화상(5000만원, 1편, 중복시상 가능)을 수여한다.

모든 수상작은 네이버웹툰에 정식 연재되며, 네이버웹툰의 매니지먼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상화상 수상작은 스튜디오N을 포함한 제작사를 통해 영상화가 추진된다.

네이버는 예비 웹툰 작가 양성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11일간 만화창작 프로젝트 '2019 지옥 캠프'에는 총 93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루에 11시간씩 웹툰에만 몰두해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해냈다. 만화가 이현세 화백과 이두호 화백 외 다수의 현직 작가들이 도움을 줬으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은 네이버웹툰의 단편선으로 연재될 예정이다.

웹툰을 통한 2차 저작물 제작에도 한창이다. '신과함께-이승편'은 영화에 이어 최근 창작가무극으로 선보였고, 웹툰 2호선 세입자도 연극으로 나왔다. 지난해 9월에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 JTBC를 통해 드라마로 방영됐고, '타인은 지옥이다'는 OCN에서 오

는 8월 31일 첫 방송된다.

카카오페이지의 CIC(사내독립기업) 다음웹툰도 예비 웹툰 작가들을 위한 '다음웹툰 공모대전'을 열어 역량 있는 작품 및 작가 발굴에 나선다. 오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대상 (5000만원, 1명), 최우수상 (1000만원, 1명), 우수상 (600만원, 2명), 장려상 (400만원, 4명) 등 역대 다음웹툰 공모대전 중 가장 높은 상금과 함께 다음웹툰 정식 연재 기회와 아이패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본선 진출작 14편은 각 작품 개발비 400만원과 약 2개월간 다음웹툰 전문가 멘토링, k-코믹스 아카데미 연계 기술 교육 등 최상의 창작환경 및 개별 프로듀싱을 지원받는다.

다음웹툰 공모대전에는 지금까지 5200여 작품이 출품됐으며 40명(팀)의 작가가 데뷔했다. 당선작 중 8작품은 영상판권 계약이 진행됐고, 13개 작품은 중국, 일본 등 해외 플랫폼에 연재돼 글로벌로 진출한 바 있다.

카카오는 방대한 슈퍼 IP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본격화에 나섰다. 다음웹툰과 카카오M의 드라마 제작사 메가몬스터, KBS가 손잡고 2020년부터 매년 1편씩 3년 동안 KBS에서 방송한다. 다음웹툰이 드라마의 원작이 될 IP 공급처 역할을, 메가몬스터는 IP를 영상화하는 제작사, KBS는 국내 대표 방송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016년 9월 카카오페이지의 사내독립기업으로 분사한 다음웹툰은 웹툰을 영상과 캐릭터, 단행본 등 2차 저작물화 하는데 앞장서 현재까지 다음웹툰의 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2차 저작물만 432개에 달한다.

최근 작품 중에는 카카오페이지의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tvN에서 드라마로 방영됐고, '롱리브더킹'이 영화화됐다. 다음웹툰작품 중에선 '강철비(웹툰명 스틸레인)'이 영화로 제작됐다.

/구서윤 기자 yuni2514@